

익산다이로움 혜택 팡팡

익산시, 침체된 지역경제·골목상권 활성화 도모

‘월 최대 10만원’ 11~12월 페이백 포인트 지원 등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익산다이로움을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충전) 시 즉시 5만원을 주어 적립, 사용(결제) 시 5만원의 페이백을 포인트로 주는 등 월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달 30일 시에 따르면 11월부터 2개월 동안 지역 경기침체 극복 기원 이벤트의 일환으로 익산다이로움 페이백을 시행한다. 페이백 지급 일정은 사용한 달의 익월 20일경이다.

이번 이벤트는 그동안 시행한 지역 화폐 소비 촉진 제도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시행해주길 바라는 소상공인의 견의를 반영해 경기침체 극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어양동), ▲익산농업협동조합 하나로 마트(모현동), ▲익산병원, ▲익산원예농협 루컬푸드직매장영등동), ▲익산원예농협하나로마트(모현동)이다.

시는 페이백 제외업체 10곳을 시 흠페이지 및 익산다이로움 앱 팝업창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 '추석명절' 골목상권 살리기'로 페이백 혜택을 준미트마트, 농협미트, 대형병원을 제한한 결과 골목상권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조사돼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다. 이에 따라 이번 이벤트도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골목상권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페이백 지원으로 코로나9로 지친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시민들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디아로움을 골목상권에서 이용해 골목상권에 힘을 많이 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가 코로나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밀집 장소 방문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익산시, 코로나 확진자 발생

‘방역수칙 준수’ 당부… 밀접 접촉자 8명 전원 음성

익산시가 코로나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밀집 장소 방문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명현 보건소장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9 지역 확진자 발생 현황과 접촉자 여부에 대해 설명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역의 한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익산 20번(전북 166번) 확진자는 지난 달 25일 대구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해당 식당 주방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저녁 7시 30분 까지 시골집에 머문 후 8시부터 8시 20분까지 지역의 한 마트를 방문했다. 확진자는 이동 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시는 가을철 나들이객과 주말 헬라운데이를 맞아 최근에는 총 1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예상돼 방역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28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식당 주방에서 근무한 후 밤 8시부터 30분 동안 언니집을 방문한 후 자택에 머물렀다. 29일에는 대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고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한 뒤 밤 10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20번(전북 166번)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가족, 종업원 등 8명에 대한 검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했으며 최종 음성으로 확인됐다. 현재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에 대한 소독을 마무리했으며 휴대전화와 GPS, 카드사용 내역을 통해 추가 접촉자를 찾아 중인다.

익산시는 전국적으로 산발적 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타지역 방문과 외부인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시는 가을철 나들이객과 주말 헬라운데이를 맞아 최근에는 총 1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예상돼 방역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비응 마파지길’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 선정



군산 ‘비응 마파지길’이 한국관광공사 선정한 2020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비대면 관광지 100선은 거리두기를 지키며 가을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관광지로서 한국관광공사는 관광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광지 ‘호암도, 교룡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대면지수를 표시하고 있다.

‘비응 마파지길’은 옛부터 비응도 주민들이 ‘마파림(남풍)’을 받는 자리’라는 뜻에서 ‘마파지’라고 불렸던 곳으로 비응한 주변 해양체험 편의시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초 전망대 쉼터와 함께 1.8km의 산책로가 조성됐다.

기족, 연인과 함께 걷는 산책로는 푸른 바다 배경과 어우러져 포토존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며 전망대 쉼터에서는 확 트인 서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또한 멀리 바다를 가로지르는

군산 ‘비응 마파지길’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0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됐다.

배들과 수평선 넘어 서서히 지는 석양은 코로나9로 지친 관광객들 마음에 잔잔한 위안을 주며 어둠과 함께 찾아

오는 은은한 조명은 봄바다와 어우러져 멋스러움을 더한다.

/군산=환경봉기자

군산시 ‘위기기구 긴급생계지원’ 내달 6일까지 연장

군산시는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위기기구 긴급 생계지원사업’ 신청 기간이 11월 6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 기준도 일부 완화돼, 기존 ‘소득 25% 이상 감소’에서 ‘소득 감소’로 완화되었으며 일용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신고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하고, 요일제 신청 제한도 폐지됐다.

지급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휴폐업·급여감소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0만

2,000원), 재산 39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이다.

온라인 접수는 복지로(www.bokjirao.go.kr)에서 세대주 신청을 진행하고 있고, 현장접수는 주민등록 관할 읍면 등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 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 및 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12월 말 신청한 계좌로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군산=환경봉기자

중央체육공원, 테마 있는 힐링 쉼터 ‘탈바꿈’

익산 중앙체육공원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힐링 쉼터로 탈바꿈된다.

시는 지난달 30일 전북도에서 주관한 테마가 있는 공원·조형물 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1억4,4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공원 분야에 익산 시와 군산시, 조형물 분야에 고창군 등 3개 시군이 선정되어 올해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사업이 추진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지역 소식통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군산시, 서비스시범 운영

군산시가 외교부 정부 혁신 과제로 시행 중인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시범 운영 기관으로 지정됐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지난 7월 전국 7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시작으로 지난달 29일부터 군산시를 포함한 48개소에서 확대 운영되고 오는 12월부터는 전국에서 시행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는 일반 전자여권 발급 기록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정부24(<http://www.gov.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여권 사진을 업로드하고 수료증을 납부하면 된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병역 미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공·긴급 여권 신청자는 직접 민원창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군산=환경봉기자

군산시, 가족사진공모전

시민 온라인 투표 진행

군산시가 저출산·함께육아 인식개선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한 2020 군산시 슬기로운 가족생활 사진공모전’에 대한 최종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시민들의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족사진공모전에 접수된 작품수는 총 28가족 52점이며, 그 중 1차 사전심사를 거친 30개의 작품이 최종심사 대상 작품으로 선정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최종심사는 비대면 온라인 투표방식과 전문가 심사를 협진하여 수상작을 결정한다.

인터넷 투표기간은 11월 2일에서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며, 투표 방법은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최종심사 대상 30 작품을 감상한 뒤 가장 유익하고 행복한 가족사진 5작품을 골라 투표하면 된다.

시는 사전심사를 거친 30개의 작품 중 온라인 투표(50%)와 전문가 심사(50%)를 합산한 접수로 8작품을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군산=환경봉기자